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9, pp.483-494
<https://doi.org/10.29212/mh.2023..129.48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근대이행기 한국의 군사적 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 한동훈 지음, 『대원군집권기 한국군사사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

홍문기*

1. 근대이행기 한국 군사사

19세기 프로이센의 군인이자 근대적인 군사학의 지평을 연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전쟁론』에서 ‘전쟁은 정치의 또 다른 연장일 뿐이다’라고 말했다.¹⁾ 이처럼 군사(軍事)는 곧 국사(國事)이며, 한 국가의 군사(軍史)는 정치사, 외교사, 경제사, 사상사 등 역사 전반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특히 그 국가가 심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소위 개

* 충신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1)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저 / 김만수 역, 2016, 『전쟁론』, 갈무리, 995-996쪽.

항기 혹은 근대이행기로 불리는 시기의 군사사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다.

그동안 근대이행기 한국 군사사는 주로 군제사(軍制史)에 집중한 경향이 컸다. 실제로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매우 빈번한 군제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1907년에는 우리나라 역사 초유의 군대 해산까지 경험하는 등 제도적인 변화가 극심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겪어야만 했던 것은 군사 분야뿐만이 아니었다. 서세동점의 시대 속에서 한국 사회 전체가 전례 없는 격심한 변화를 강요당했던 것이다. 그 결과 당시 조선은 수백 년 동안 고수해왔던 성리학 중심의 사상체계를 포기하고 서구의 사상을 도입해야 했으며, 소농(小農)을 중심으로 유지되어왔던 전통적인 농업경제체제 대신 공장제 공업을 기축으로 하는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어야 했으며, 유교적 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전통적인 정치체제의 와해를 딛고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한 혼란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피차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행되었으며, 군사 영역 또한 그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이 시기 한국 군사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근대이행기 역사서술은 그 이전 시기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분절적으로 서술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는 이 시기 우리나라가 전체 조선시대 중에서 국외적 요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음에도, 그 역사의 서술은 타국의 침략과 민족의 저항, 그리고 국망이라는 민족주의적 이념과 서사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근대와 근대의 접점, 국가와 국가의 접점이 자연스럽게 함께 고려되어 서술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근대이행기 조선이 중화조공질서의 제약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외교관계를 서구 여러 나라들과 맺어가면서 교류하는 국가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참고해야 할 사료의 난이도가 폭증한 때문이기도 하다. 상술한 것처럼 그간 근대이행기 한국 군사사가 다분히 제도사 서술에 그친 것도 이러한 연구환경적 제약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장차 근대이행기 한국군사사가 발전해나가야 할 방향은 당대의 국제관계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 다양한 국내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군사적인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2023년 한동훈이 저술한 『대원군 집권기 한국 군사사 연구』는, 전체사의 시야로 근대이행기 초기 한국 군사사를 조망한 역저로 평가될만 한다. 저자는 근대이행기 한러관계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에도 각종 학술지에 연구성과를 여러 번 발표한 바 있다.²⁾ 그리고 이 책은 그동안 외교사 및 국내 정치사 분야에 대한 저자의 연구성과를 군사사에 접목시켜 만든 성과물이다. 이 글을 통해 그 작업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조출한 제언을 덧붙이는 것으로 부족한 서평을 갈음하고자 한다.

2. 책의 구성과 내용

저자는 대원군집권기에 주목하여 군사사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아편전쟁 및 페리의 내일(來日)로 촉발된 19세기 중반

2) 한동훈, 2010, 『조러육로통상장정(1888)의 체결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19세기 후반 조선과 러시아의 상호인식과 외교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거문도사건(1885)을 둘러싼 영·러의 대립 양상과 러시아의 대응」, 『군사연구』154; 2022, 「'조러밀약'을 통한 고종의 대러관계 강화 시도와 의미 - 고종의 보호국 인식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126; 2022, 「19세기 말 조선인의 연해주 월경과 한인마을의 형성 - 조·청·러 삼국의 쇄환교섭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8.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붕괴가 조선 정부 및 지식인들에게 끼친 충격, 이를 통해 조선에 대두된 해방론(海防論)의 양상, 그리고 조선이 처한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이 해방론이 실체화되어가는 과정을 밝혔다. 저자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근대이행기 중 초기에 해당하는 대원군집권기 한국군사사를 입체적으로 서술하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 6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대원군집권기 한국 군사사를 시기순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제1장은 1·2차 아편 전쟁을 통해 중국이 받게 된 충격과 이 전쟁에 대한 정보들을 연행사(燕行使)를 통해 접한 후 발생한 조선 사회의 동요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대원군집권기 새로운 군사정책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규명하고자 했다.

제2장은 서세동점의 위기 속에서 중국과 일본에서 대두된 해방론과 그 영향 속에서 형성된 조선의 해방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원군집권기 군사정책의 국제적 맥락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 비변사의 개편, 무장 권한 강화, 삼군부의 복설과 군령권 통합 등 대원군이 집권한 이후 주도한 군사개혁정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제4장은 대원군이 주도한 군사개혁정책이 첫 번째로 겪은 실전의 시험대인 병인양요를 다루고 있다. 병인박해로 인해 병인양요가 발생한 과정과 프랑스와의 전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제5장은 병인양요의 경험을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에서 나타난 군대의 정비, 군사재정 확충, 무기 및 군사 시설의 정비와 개발 등을 다루고 있다.

제6장은 대원군집권기 발생한 두 번째 군사적 위기인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병인

양요 이후 정비된 조선의 군사체제가 실제로 어떻게 검증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 중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1, 2장이다. 중국과 일본이 겪은 서구의 충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조선 정부와 지식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했는지를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저자는 그러한 성과 위에서 그동안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원군의 군사정책,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군사적 경험들을 재구성한다. 그 결과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이 실은 매우 다양하고도 풍부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 것임을 낫선 방식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3. 대원군집권기 해방론의 계보

이 책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1, 2차 아편전쟁을 통해 중국은 개방을 강제당했고 전통적인 중국의 사회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 또한 흑선(黑船)의 충격을 거치면서 쇄국정책을 포기하고 사회의 전면적 변화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조선사회는 연행사 등의 경로를 통해 이러한 동북아시아 정세를 끊임없이 관찰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저자는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 기존의 편년체 사료 외에 『연행록』 등의 정부사료와 샤를르 달레의 일기 등 외국인 기록들을 통해 서세동점의 군사적 위기에 대한 조선 사회의 위기의식을 포착했으며, 핵심 권력층, 지식인층, 기층 사회가 어떤 동요를 겪었는지를 밝혔다. 그리고 정약용, 박규수, 김정희, 윤섭, 윤종의, 강위 등 위정자 및 사상가들의 언사와 저

작을 인용하여,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사회가 모색한 해방론의 내용을 검토했다.

서세동점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자존과 독립을 위한 대응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 근대이행기 한국사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며, 이는 사실 역사적으로 크게 틀리지 않은 내용이다. 특히 국방의 영역에서는 그러한 조선의 불충분한 대응을 현대 국방정책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회는 서구의 아시아 침략에 대해 나름의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나름의 국방론을 도출해낸 바 있다. 그러한 결론들이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는 물론 또다른 검토의 대상이겠으나, 최소한 서구와의 본격적인 충돌을 경험하기 전에 조선 사회가 이미 여러 가지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이는 근대이행기 조선을 선불리 ‘군사적 반면교사’로 단정하게 만들 수 없는 지점이다.

조선의 전통적인 외교론과 국방론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것이 19세기 후반 어떤 식으로 변화해갔는지를 이해해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업들이 왜 실패했는지까지 분석해야만 근대이행기 한국 국방의 역사에서 어떤 통찰을 얻어내 오늘날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유의미한 결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저자는 서구와의 충돌이 동북아시아 3국의 해방론에 끼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해방론은 아편전쟁의 충격으로 시작되어, 서양의 침략을 차단하기 위한 제이책(制夷策)에서 점차 서양의 문물을 배우자는 양무책(洋武策)으로 전환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를 위해 저자는 임칙서의 『사주지(四洲志)』, 위원의 『해국도지(海國圖志)』,

양정남의 『이분기문(夷氛紀聞)』, 요영의 『강유기행(康輜紀行)』, 풍계분의 『교빈로항의(校邠廬抗議)』 등 대표적인 해방서적들을 분석하여 1850~60년대 중국 해방론의 변화를 분석해냈다.

한편 일본의 해방론은 18세기 후반 러시아의 남하로 촉발되었다. 처음에는 에도만 방어에 집중한 수비적 성격을 띠었으나 곧 에조지의 개척, 캄차카 및 오흐츠크 점령, 남방 진출 등 공세적 방위태세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며 이는 향후 일본 ‘팽창론’의 전조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하야시 시헤이의 『해국병담(海國兵談)』, 사토 노부히로의 『방해책(防海策)』, 사쿠마 쇼잔의 건백서, 요시다 쇼인 및 기도 다카요시의 정한론(征韓論)을 검토하여 이러한 일본 해방론의 변화를 포착해냈다.

중국은 아편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페리의 흑선(黑船)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병인양요 및 신미양요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서구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방위론이 제기되었다. 시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제일 빨랐으나 그 대응의 전략적 유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본이 가장 적절하게 변화해나갔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은 양무운동을 진행하여 1880년대에는 이미 근대적 해군을 창설하고 북양함대, 남양함대, 복건함대 등 3개 함대를 창설하여 규모 면에서는 유럽의 강국들에도 뒤지지 않는 해양방위체계를 만들었다. 반면 일본은, 막부나 메이지 웅변들을 중심으로 해양방위체계를 만들어나간 역사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중국에 비해 그 강화의 시작 시기 및 투자액은 적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패권을 일본이 차지했다는 것은, 각국의 해방론 및 그 근거가 되는 국가관에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서는 이러한 점들을 충실하게 포착해내어, 전술적 영역을 넘어 전략적 국방론의 변화상을 설명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이렇게 동북아시아 각국 안에 해방론이 확대되어가는 가운데 그 영향 속에서 조선의 해방론도 구체화되어갔다. 18세기 후반에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논의되는데 그쳤으며 안정복의 민보방위론(民保防衛論)과 해방변어지책(海防邊禦之策), 한치윤과 유득공의 무기개발론, 정약용의 선진무기 수입론 등이 그것이다. 반면 19세기 중반 아편전쟁 이후 나타난 해방론은 서구의 침략을 구체적으로 상정하여 척사론적 입장에서 정책화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중 박규수, 강위 등은 관념적인 척사론을 넘어 '서학'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사상적 침략과는 별개로 서구의 무기 기술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강화도 등 도성 주변의 연안 방비를 강화해야 하므로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해방론은 1864년 대원군집권 이후, 특히 병인양요·신미양요 등 외국과의 충돌을 겪으면서 신속하게 정책화되었다. 저자는 상술한 조선의 해방론자들의 언술과 저서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선 해방론의 계보를 재구성해내는데 성공했다. 이는 조선 말기 및 근대이행기 군사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4. 대원군집권기 군사개혁정책의 변화

또한 병인양요 이전 조선의 국방론이 어떻게 변화해갔는지를 정리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흥선대원군은 집권 이후 서구 세력의 침략에 대한 조선 조야(朝野)의 우려를 이용하여 세도가문의 정치기구화된 비변사 대신 실질적인 군령권 행사기관인 삼군부(三軍府)를 복설하고 무장세력들을 포섭하여 군령권을 통합시켰

다. 이는 흥선대원군의 정권장악이라는 정치적 의미 외에, 문관에 의한 군 통제가 너무나 과도했기에 그 군사적 전문성을 상실했던 조선후기 군사체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병인양요의 경험을 통해 포군(砲軍)을 양성하는 한편 향포(鄉砲)를 선발하여 운영하도록 했으며, 강화진무영을 강화시켰고, 그 외 지방 진영을 정비하고 각 지역의 포군을 증설했으며, 서구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는 등 당시 상황을 반영한 군사개혁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본서는 흔히 조선 말기 근대적 국방개혁의 시초라고 평가되는 1880년대 초 별기군(別技軍)의 설치가 아닌 대원군집권기 군사기구의 재편을 근대이행기 국방개혁의 시초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서구적 무기나 훈련방식 등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조선 정치권이 갖고 있었던 ‘국방관’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이를 구현해내고자 했던 집권세력의 노력에 주목한 결과로 평가된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흥선대원군은 절대 척화론자가 아니었으며 특히 국방에 있어서는 양무운동 신봉자라고 할 수 있을만큼 서구의 무기체계를 연구하고 도입하는데 적극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왕이 아닌 왕의 생부(生父)라는 불확실한 정치적 입지 때문에 그러한 국방 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없었을 뿐이다.

대신 흥선대원군은 집권 직후부터 다양한 군사적 개혁을 실시했으며, 이는 본서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대원군의 부족한 정치적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함과 동시에, 북방의 러시아와 동방의 일본이라는, 새롭게 육박해들어오고 있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흥선대원군이 종친부 외에 삼군부를 국

가 권력의 핵심기관으로 만들고, 조선이 제승방략 체제 이래 고수해왔던 중앙 중심의(즉, 반란 진압 중심의) 국방 체계를 개편하여 지방군의 역지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했으며, 당시 조선의 부족한 군사재정을 벌충하기 위해 포군(砲軍) 등 다양한 민간 병종을 발굴·동원했던 것이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리고 그 성과가 바로, 비록 전반적으로 전술적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전략적으로는 성과를 거두었던 신미양요였다.

병인양요 당시 강화도 수비군 사령관이 도주할 정도로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던 조선은 그에 경각심을 품고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을 해나갔다. 그 결과 신미양요 당시, 명백한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유의미한 군사적 대응을 전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국론 통일과 이후의 군사력 강화의 정치적 동력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원군과 정치적 입장이 전혀 달랐던 고종이 별기군을 창설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대원군의 이러한 군사적 성과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본서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충실하게 짚어나가면서, 유의미한 국방력의 강화는 뛰어난 무기나 전술을 무작정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국가 여론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비로소 이뤄지는 종합적 사업임을 제시해준다.

물론 저자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19세기 전반 조선은 서양의 근대적 무기체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조선 내부에도 근대적 무기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았기에 전술의 변화만으로 서양의 침입을 막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병인양요 이후 실시된 다양한 군사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선군은 5년 뒤 벌어진 신미양요 때 침입한 미국 군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

다고 하더라도, 근대 국방개혁이 실시되기 이전에 전통적인 국방론이 어떻게 변화해나갔는지를 이해해야만, 왜 조선 사회가 근대 국방개혁에 실패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서의 작업은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5. 결론과 제언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의 정치 관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군이 정치의 영역을 존중·보호하면서 국방력 강화라는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정치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군사(軍事)의 한계를 넘는 군사사(軍事史)’로서 본서의 가치는 확고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대이행기 한국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로서 본서를 읽으면서 느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흥선대원군이 정권의 안정을 위해 세도가문들에 비해서 무관을 중용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강화도조약 교섭을 주도한 신현, 대원군과 고종 모두에게 중용되었으며 대표적인 개화파인 윤치호의 아버지인 윤웅렬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근대 지휘관을 넘어서 조선의 국방, 외교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저자는 박규수, 김정희, 강위 등 개혁적 문관들을 중심으로 대원군집권기 조선의 해방론을 검토했는데, 실제 군인이자 동시에 정치가였던 무관 출신 관료들의 주장과 정책은 어떠했을까? 이를 규명한다면 대원군집권기를 넘어 고종친정기까지 이어지는 근대이행기 해방론 및 군사개혁정책의 역사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대원군 정권은 1873년까지 이어지며 사실상 1882년 임오군란 당시까지 군사 분야에 대한 대원군 세력의 영향력은 여전히 잔존했다. 그런데 이 책의 서술은 1871년 병인양요에서 종결되고 있다. 그 결과 1866년 병인양요 이후 실시된 군사개혁정책이 실제로 신미양요 때 어떤 기능을 했는지, 신미양요의 피해와 경험들은 이후 조선의 해안방어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로 유사한 상황이었던 1875년 운요호 사건 때 조선의 전략적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대원군집권기 및 그 직후의 군사사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되는 내용들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 추후 이에 대한 보강이 적절히 이뤄지리라 기대한다.

다극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자주국방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작금의 세계 정세가 여러모로 근대이행기 조선-대한제국이 처한 상황과 유사하다는 언설은, 이제 식상할 지경이 되었다. 이러한 시기의 군사정책이 변화되어간 실상을 공시적·통시적으로 깊이 있게 천착한 저작이 이제야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만시지탄이라 하겠다. 저자의 치열한 연구가 학계와 사회, 그리고 군에 적잖은 도전을 제시하리라 기대한다.